

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제1196호
4월 23일
2022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하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총회사무처
■ 농협 301-0153-7296-01
■ 문외 021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0, 서울 다-079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www.aogk.org) 이메일: mok2677@naver.com 전화: 02)2677-9935~7 FAX: 0504)027-0897



조용목 목사 “여러분의 헌신적인 활동은 순전한 애국심 혹은 독실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

전국 기독교계와 보수 시민단체, ‘제1차 대표자회의’ 개최



한국보수시민단체 및 전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단



임영목 목사
전기총연 이사장

(사)전국17개광역시도226개 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임영목 목사, 이하 전기총연)와 한국보수시민단체 및전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4월 8일(금) 오전 11시 경기도 안양 시 소재 은혜와진리교회(회장 조용목 목사)에서 ‘제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자유대한민국 한국교회 수호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전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제1차 대표자회 선거 이후 첫 모임을 갖고 향후 주요 활동 계획과 목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기도는 유원석 목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수석집회회장)의 사회, 신계영 목사(하성교회), 김병기 목사(기독교총연합회 직전회장)의 대표기도, 박종호 목사(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의 성경봉독, 조용목 목사(전기총연 고문)의 설교 순서로 이어졌다.

조용목 목사는 설교에 앞서 그동안 수고한 모든 이들을 대표해 임영목 목사와 민경욱 전 의원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조 목사는 시 126:2 말씀을 본문으로 머슴에게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의 소원과 강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대전을 통해 승리를 얻게 하셨다. 실로 벼랑 끝에서의 반전”이라고 했다.

조 목사는 “198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일어난 전쟁은 국가와 교회의 존망을 위기에 처하게 하였는데, 교회의 존망까지 위태롭게 된 이유는 전쟁에 패하면 나라가 공화되는데 비유를 맞게 되기 때문”이라며, 지난 수백 수천 국가 안락과 신앙생활에 대한 기쁨이 급속히 침침해짐으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각각의 능력과 은사로써 각 분야와 성소에서 충성 없는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분단의 모습과 활동 그 자체가 위대한



조용목목사는설교에 앞서 그동안수고한 모든이들을 대표해 임영목목사와 민경욱 전 의원이 꽃다발을 전달했다.

설교이며 놀라운 영감이었으며 이를 통하여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고 회개를 보았다고 언급하였다. 아래의 글은 설교의 후반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에서 보게 되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신앙의 자유, 헌정수호, 법치, 한미동맹을 지키고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헌신적인 활동은 순전한 애국심 혹은 독실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공통적인 현저한 특징이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았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침묵을 지키다가 위기가 해소되면 고개를 들고 나서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희생과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과 대한민국과 교회에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가 보전되는 것을 헌신의 보상으로 이는 응시들입니다. -종락지나 2월2일 전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어진 한목교회, 시민단체 사회단체 야권단체의 연대 모임이 부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현 시국이 이런 연대를 촉발시켰습니다. 일치된 목표를 지향하는 크고 작은 모임과 사람들이 도저에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으로 의기투합하여 모였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저의 행위는 선택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하나님도 의지심입니다. 이런 것은 살아야 했습니다. (한국보수시민단체 및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연대 출범식)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리에 감응하고 서로 격려하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연대 협력을 감동하고 논의하기 위하여 오늘 (제1차대표자회의)로 모였습니다. 오늘 모임을 통해 더욱 고무되고 분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석철 대통령 당선 확정 발표를 들은 순간 저의 마음에 다양한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설교를 펴봤습니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찬양되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리라’

설교 이후에는 이원국 목사(부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가 비록 우리 민족은 유서없이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 강경조 목사(제주기독교총연합회 회장)가 위법 행위를 위해, 안준호 목사(충남기독교총연합회 회장)가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위해, 박종호 목사(경남기독교총연합회 직전회장)가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유원석 목사(전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가 남북통일을 위해 각각 기도했고, 홍호수 목사(경기총회 사무총장)가 광고를 전한 데 이어 강경조 목사(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축도했다.

이처럼 특별한 보고 시간에는 홍호수 목사의 사회로 임영목 목사의 원성이 있었으며 임 목사는 환영사에서 “지난 제1차 대통령 선거 결과 우리가 소망했던 정권교체가 이뤄져 대히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자유대한민국과 한민족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은 물론 이러한 취지에 맞

춰 오늘 전기총연과 보기총 ‘제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 목사는 “보기총의 신과 연합을 한 전기총연은 보기총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기독교 및 보수시민단체들을 돕는다. 전기총연과 보기총 임원들은 서로를 한 배를 탄 동지이자 야고보의 기쁨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며 “나는 곧 한국교회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원민 목사(전기총연 사무총장)가 “전기총연의 방향과 사업 계획”, 주요설 목사(한기총 서기)가 “보기총 시민단체의 방향과 사업 계획”, 박성현 대표가 “지방·

교육선거 진행과정과 전망”, 민경욱 대표가 “공정선거 참관·감시운동의 현황과 의미”, 손영광 대표가 “사법 앞에 선 청년들의 이야기”를 각각 보고했다.

특히 전기총연은 건강한 시민단체들을 지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세계관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으며, 보기총은 교회들의 약한 중흥을 막아내고 보수 세력을 결속시키는 데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후 장경기 소개와 기어 안전 자유로움을 한 뒤 지역 주 목사(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변화와 행복’



조용목 목사

“그러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성경은 무엇이 행복이며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절대적인 권위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신 참 행하여 우리가 여러 책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변화’라는 말과 관련하여 무엇이 참된 행복이며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변화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첫째, 영혼이 거듭나는 변화입니다. 거듭나는 변화는 그 사람의 본질이 새롭게 되는 변화입니다. 그 본질이란 영혼을 의미합니다. 첫 사람이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의 유산으로 영혼 역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영혼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결국 지옥 행방에 처하게 됩니다. 이 비극적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영혼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 변화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란 대속을 통한 속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으며, 독생자 예수님을 아바지의 뜻을 좇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까지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 하셨습니다. 그대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어떤 그 영혼이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영혼의 변화를 거듭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 값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새 생명을 얻어내시니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그리스도도 믿어있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주 안에서 신분이 변화된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혼이 거듭나는 변화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 성도, 천국시민이라는 칭호로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의 영접 받은 변화입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로 인정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의를 소유한 자로 평생을 받게 된 자를 말합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구별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여 구별된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천국시민이 되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지 될 자가 천국시민이 되었습니다. 그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더 행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신분의 영혼이 거듭나는 변화는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지체 사미 경배하게 될 육체의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를 입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을 기어와 가꾸고 만들도록 질서가 주어지지 않은 것들과 함께 갈라지는 무질서하게 되고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추하게 변하고 생명을 가진 것이 주검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기쁘고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을 사모하기까지 죽음을 행한 필로가 없게 하여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육체가 아담에게 변화되는 소망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최상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날이 옵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믿어집니다. 변화된 몸이 대하여 고난도전서 15장에 계시된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이해됩니다. 색을 물이 색이 아니니 몸으로 변합니다. 수직으로 물이 영광으로 영광으로 변합니다. 육체가 강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육체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땅에 속한 행위가 하늘에 속한 행위로 변화됩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아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대한 개념이 세상 사람이 가지는 행복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한 행복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우리말 성경 번역 140주년 심포지엄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 조명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주최로 오는 4월 26일(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연세로 연세우드홀(Live, 유튜브 Live 동시 진행)에서 연 로스의 한글 성경 번역이 한국 교회와 사회문화에 끼친 영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022년은 존 로스(John Ross, 羅約翰, 1842-1915년)가 최초의 우리말 단편 성서인 배수경교수기복음전서와 '예수경교요한복음전서'를 발간한 지 140년이 되는 해이다.

스코틀랜드영문학도 소속 선교사인 존 로스는, 1872년에 중국 만주에 도착한 후, 1882년부터 동역자 존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와 이응달, 백홍준, 서성훈, 이상하 등과 함께 우리말 단편 성서를 차례로 번



역, 출간했다. 그리고 1887년에는 최초의 우리말 신약성서인 '배수경교전서'를 번역, 출간했다. 이 성서들은 한국 교회 성장과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문화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글 제정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이에 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에서는 한

국기독교역사연구소와 함께,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존 로스의 한글 성경 번역이 한국 교회와 사회문화에 끼친 영향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먼저 유성복 교수(UCAL)가 존 로스와 한국 개신교, 로스의 첫 한글 복음서 출판 140주년에 부처 "라는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제1주제인 '역대 한국어 성경 번역부 대비'를 통한 로스 번역의 언어·문화적 특징 연구에 대해 유영민 교수(연세대학교)가 발표자로 나선다.

△제2주제인 "로스 한글 성경의 보급과 현재 소장품에 대한 연구"에 대해 박형진 교수(남서울대학교)가 발표자로, 류대영 교수(한동대학교)가 토론자로 나선다.

군선교연합회, 제51차 정기총회 개최

설립 50주년 맞아 주요 사업계획 등 확정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기독교군선교구)는 지난 4월 7일(목) 한국교회복합기법관 1층 그레이스홀에서 제5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도쿄-19 방역지침을 따라 100여 명이 현장에 참석하고, 유튜브로 동시 생중계한 이날 총회에서는 군선교연합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기념예배와 기념사업, 군선교 비전 2030 실천운동, 미디어 사업 계획 등이 발표됐다.

기념예배에서 말씀을 선포한 군선교연합회 발간이사 양정환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운 시기에 군선교는 젊은이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다음세대를 살리며 나라와 한국교회를 세우는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대 반드시 들어야 할 세 가지



소리는 양심의 소리, 역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로, 한국교회와 이 소리를 듣고 사명의식이 깨어나야 하고, 이를 젊은 세대에게도 들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협력총재인원 19명 중 11명(총서기명, 위임 42명)이 참여한 정기총회에서는 2021년 한국교회 군선교 사업을 결산하고, 2022년 사업 및 예산·예산안을 안건했다.

지난 사업 결과 보고 및 올해 사업 계획을 소개한 사무총장 이정우 목사는 "도쿄나 가운데도 세계가 아파, 각 군 교역기관에서 올해 현재 2천여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군선교연합회 설립 50주년 기념예배와 군선교역사상 조성·50년사 발간·유망자 포상 등 기념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부활의 산 소망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정통총회 정기노회



양정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정통총회는 지난 4월 18일(월)부터 19일(화) 양일간 노회를 개최했다. 서울노회 4월 정기노회에 의해 및 부활절예배에서 노회장 양정선 목사 사신전은 고전 15:51-

58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의 축복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했다.

양정선 목사는 이어 우리 모든 분들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말씀을 전할 때 현재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신 소망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고자 말씀을 전했다.

예수교노회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

를 보여준 축복이라고 전하고 죄악에 대한 승리와 죄에서부터 변화된 승리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승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수교노회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주신 영원한 축복이라고 전하고 무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떼앗을 자가 없으며, 오 5:24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심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하리라"는 기록된 말씀을 전했다.

제2부 정기노회에서는 각부 보고를 받고 임원을 선출하고 강도사 인사와 전도사 임직을 전했다. 총회에서는 각 노회의 보고를 받았으며 총회장은 수고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뜻을 각 노회에 전했다.



새로남교회, 우크라이나에 구호금 전달

“우크라이나의 눈물 닦아주고 기도해달라”

새로남교회(오호성 목사·예장합동)가 그동안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특별성금을 마련하고 지난 4월 22일 주일예배 예배에서 한국교회봉사단(10여 개)에 한교당에 건립금으로 50,000원을 전달했다.

오호성 목사는 성도들에게 준비된 영성으로 한교당의 우크라이나 구호 활동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교회들의 노력이 한바탕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경인식에서 오 목사는 우크라이나 형제들이 한 교단 중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이 활동의 총괄책임자인 김대영 목사를 소개했다.

한교당 대표 단장 김대영 목사(부산백령로)는, 예산을 전달한 김대영 목사는 "우리 성



도들이 날마다 불편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 뉴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소식"이라며 "매년 100만 명의 난민들이 한바탕 닦아주고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목사는 "공식사에서 우크라이나

의 눈물을 닦아주고 기도해주시길 바란다"며 그동안 활동과 앞으로 진행할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한교당은 김선 한 달 정도 머물렀다가 동유럽에서 사귀고, 그리고 독일 쪽으로 망명해 가는 난민들에게 의복과 생수, 음식 등을 그동안 제공했다. 김대영 목사와 임원들은 이날 주중에 할 일을 정리하고, 한 주가 끝나면 장거리에 있는 전쟁 구호대 수송원 많은 난민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지 지역 교단들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들 통해 앞으로 한국교회에서 물질적 후원 및 지원을 하던 현지 교단들과 성도들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전달할 방침이다.

부활절예배, 연합기관 통합 관련 건 논의

한국교회연합 제11-2차 임원회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이 지난 4월 5일(화) 오전 11시 한국교회연합에서 제11-2차 임원회를 열어 연합기관 통합 문제와 부활절 연합예배 개최 건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대외협력 총서기인원 19명 중 11명(총서기명, 위임 42명)이 참여한 정기총회에서는 2021년 한국교회 군선교 사업을 결산하고, 2022년 사업 및 예산·예산안을 안건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부활절 연합예배와 관련한 지난 1회기부터 지속해온 부활절 새벽예배를 올해도 추진하는 안과 17일 오후 3시에 평화통일에서 열리는 부활절집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끝에 대표회장과 사무총장에게 위임해 결정할 후 각 회임과 단에 공시하기로

되고 있는 한국교회에는 총회를 열어 대표회장 등 집행부별 구성하는 등 정속화되면 조속히 이 통합한다"는 원칙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부활절 연합예배와 관련한 지난 1회기부터 지속해온 부활절 새벽예배를 올해도 추진하는 안과 17일 오후 3시에 평화통일에서 열리는 부활절집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끝에 대표회장과 사무총장에게 위임해 결정할 후 각 회임과 단에 공시하기로

했다. 이날 임원회는 회임과단에서 보내는 재해 구호단원을 우크라이나 현지 선교사에게 보내 전쟁 난민을 돕는 데 전역 사출하기로 했으며, 발간이사로 조성훈 목사(예장 대)에 한 총회장과 주주자(독도사망위임장)를 추천했다.

또 21일엔 인천 라클로링에서 제5회 목회자 분림대회를, 26-28일(34주)엔 제주도에서 춘계(34주)대회를 갖기로 했다.

세기총, 제10-1차 임원회의 개최

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에 구성모 박사 선임

(사)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신화식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는 지난 4월 6일(수)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교회연합관 904호 세기총 회의실에서 10회기 첫 임원회를 개최하고 세기총 정책연구원장에 구성모 박사를 선임하는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임원회는 지난 운영위원회와 정기총회에서 심의를 결정한 '세기총 정책연구원'의 초대 원장에 신광대학교 신교학 교수인 구성모 박사(한국복음주의선교학회 회장)를 선임했다.

세기총 정책연구원은 세기총 10주년을 맞아 지난 사역들을 평가하고 미래적 소명을 감회하여 발전을 모색하는 한편, 한미디아스포라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고, 세기총이 미래에 부흥하는 기관으로 존재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후 세기총 정책연구원은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비롯한 한국 내 기관은 물론 해외 관련 국가의 정부

와 국내외 민간단체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 이날 임원회에서는 당초 9월로 예정되어 있던 세기총 회계장 대외 및 향리 & 스트리아 자유·평화통일 기도를 6월 12일 대외의 일정 연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6월로 당겨 진행하기로 했다.

세기총 회계장 대외는 6월 13일(월)-16일(목)까지 3박 4일간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비엔나 한인교회(당일 중정영 목사)에서 진

행될 예정이다. 향리 자유·평화통일 기도는 6월 10일 향리 부다페스트에서 오스트리아 자유·평화통일 기도를 6월 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임원회에서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공동회장 박광원 목사의 사회로 발간이사 김준규 장로와 기도에 이어 대표회장 신화식 목사가 기독교 역사의 변곡점(11:39-2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3회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동대-세브에듀, 차세대 기독교인재 양성 위해 협력

AI기반 교육시스템 보급으로 교회 학교교육 가능성 열어간다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 VIC 총장)는 교육지원센터(센터장 최장규)와 세브에듀(대표이사 차정환)는 11일 MOU를 체결하고 차세대 기독교인재 양성을 위한 교회학교교육,

AI기반 교육시스템 개발 등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양기관은 협약을 통해 한국교회를 이끌고 나갈 차세대 기독교인재를 육성하



기 위해 다양한 전략 개발과 사업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기독교세대에 기반한 교회학교교육(church schooling)을 위해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에는 해당부 교수와 차정환 대표, 세계성서학문동부 김철영 사무총장과 ENABLE KOREA 조성근 대표이사, 세브에듀 최규봉 CEO 등이 참석했다.

최근 초중고등학교 공교육에서 신앙에 기반한 교육이 삼척로 도전받고 있어, 올바른 기독교인 양성이 점차 어려워진 가운데, 많은 교회에서는 대안교육을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 세대에 기반한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교사선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선명히 도전받고 있다고 있는 실정이다.



몽골기독교총연합회(연합회장 김동근 장로)와 몽기총(가 복음의 불모지 몽골에서 활발한 사역을 펼쳐, 복음의 향유를 욕망으로 바꾸고 있다.

몽기총 김동근 회장은 지난 3월 30일 몽골을 방문해 몽골 목회자들과 협력을 다지는 등 몽골사 상황에서도 꾸준히 지속되는 한국-몽골 간 연계선교활동을 펼쳤다.

이전에도 김 회장은 국제 협력교회들과 손잡고 몽골에 개교를 지원해 온갖 어려움과 몽골의 복음화와 선교에 앞장서며 한국 교회의 주축을 맡았다.

또한 개교를 건국운동에만 그치지 않고 강도, 약기 신앙도 등에 대한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자 세대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많은 몽골 목회자들과 교류하며 부흥과 회복, 비전을 나누는 일에도 앞장섰다.

그 밖에도 김 회장은 한국 가평 힐링센터를 개원해 태극 근교자들과 팔로비, 유교자, 이, 몽골, 오스트리아 등의 선교사들과 목회자, 성도들에게 무료로 수식을 제공하는 등 해외 선교사들과 협력과 회복을 돕는 한 선교도 섬김을 다해왔다.

정기지방회 열고 지방회 새임원 선출

호남지방회 정기지방회

호남지방회(회장 한기봉 목사)는 지난 4월 12일(화) 순복음순주교회(증경지방회장 조남연 목사 사무에서) 재능자 정기지방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민순복 목사(새생명교회)와 사회로 시작해 지방회 회계 김순복 목사(순복음의교회)의 기도, 서기 홍광희 목사(순복음의교회)의 독 5:1-11 성경봉독에 이어 증경회장 서배드로 목사(목포시 내산교회)의 찬양 강 마무는 곳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서 목사는 고전 13:1-3 말씀을 예화로 "성령 없이 사역하는 것은 베드로의 고기를 잡지 못하고 같다"라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어 말씀에 의지하여 묵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경지방회장 순복음원영교회 김정구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예배회는 이종현 기봉 목사의 사회로 재능자 회기 보고 후 새임원을 선출했다. 증경지방회장 조남연 목사(순복음순주교회)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총무에 증경회장 서배드로 목사(목포시 내산교회), 서기에 증경지방회장 원영교회 김정구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전회장 한기봉 목사(장계교회), 회계에 홍광희 목사(여산교회)를 선출하고 신·구 임원 인사 후 신임회장 조남연 목사의 기도로 월례회를 마쳤다. 월례회를 마친 후 회원들은 순주교회에서 준비한 예산과 함께 여러 교회 목사들이 준비한 선물을 나누며 따뜻한 사랑을 가득 안고 각자의 목회지로 돌아갔다.

교단과 교회, 새정부 위해 특별기도

강원지방회 정기지방회

강원지방회(회장 박승용 목사)는 지난 4월 11일(월) 진부제일교회에서 정기지방회를 열고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예배는 이정은 목사의 사회로 박규희 목사의 대표기도, 김형준 목사의 특별찬송, 박승용 목사의 제3:12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나무, 산악과, 동산 각종나무 씨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의 설교, 정주영 목사의 헌금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또 특별기도 시간에는



을 위하여 진정집 목사의 인도로 뜨겁게 기도했다. 이어 관용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2부 정기지방회에서는 각종 회부를

처리하고 임원직은 현 임원들을 유임하기로 하고 지방회 각부 회부를 처리한 후 각자의 목회지로 돌아갔다.

창립예배 및 장로장립 감사예배

"신유의 복음을 전하라"

충서지방회 정기지방회

충서지방회(회장 김경문 목사)는 지난 4월 9일(토) 오전 11시 엘시영교회(정진화 목사



사무에서 정기지방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인복 목사(순복음교회)와 사회로 시작해 부회장 이종한 목사(영문교회)와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에 이어 증경총회장 진동용 목사(온양교회와진리교회)의 마 8:17, 출 15:26 말씀을 본문으로 "신유의 복음을 전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진 목사는 "예수님의 3가지 사역 중에 특별히 치유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 것처럼 교회 사역의 현장에 서 복음과 함께 신유의 역사가 강하게 이 세대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헌금축복과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로 회원 점령, 총무 및 회계 보고가 있었고, 2022년도 새 임원으로 회장 이인복 목사(순복음교회)와 총무 및 회계 겸임으로 정진화 목사(엘시영교회)가 선출되었다.

이후 회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한 후에 엘시영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고 각자의 목회지로 돌아갔다.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박형열 목사)는 지난 4월 16일(토) 함빛교회(담임 오승희 목사)에서 중립 및 장로장립 예배를 드렸다. 먼저 1부 순서로 서상경 목사의 찬양인도에서 이어 서경오 목사의 사회로 김남수 목사의 기도

와 표현자 목사의 성경봉독, 목태원 중장단의 특송 후에 지방회장 박형열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마 14:22-23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만 바라보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먼저 부활절을 앞두고 교회장립과 장로장립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린다"면서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

고 나갈 때는 당당히 나갔지만 순간 불어오는 바람에 놀라 바다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완난의 풍랑에 믿음의 흔들려 넘어질 때가 많았다"고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때일수록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수만 바라보며 나가는 목회자의 정리가 되기를 당부했다.

이후 2부에서는 박형열 목사의 인도로 창립 및 취임선교에 이어 담임 오승희 목사의 집례로 장로장립식 서약과 안수식, 공포, 임직과 수발을 가렸다.

3부에서는 정석연 목사의 권면과 김기인 목사의 축사에 이어 황형의 장로의 인사 및 광고 후에 박형열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 후 참람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등 각자 목회지로 향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혈문산교회

말씀회복 금식 축복성회

"회복시키고 심령을 불도소서" (사51:12)

강사	강사	강사	강사	강사	담임
조간수 목사 순복음의교회 • 23일(화) 저녁 • 24일(화) 낮	신기찬 목사 방이산교회 • 24일(화) 저녁 • 25일(수) 낮	김기진 목사 재민교회(원미동) • 25일(수) 저녁	최병인 목사 순복음의교회 • 26일(목) 낮	기호선 목사 재민교회(원미동) • 26일(목) 저녁	김남수 목사 혈문산교회 • 매일 새벽 (신복)

일시
2022년 5월 23일(월)~26일(목)
새벽 5시30분 · 오전 10시30분 · 저녁 7시

장소 및 문의
혈문산교회(담임 김남수 목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181번길 91-16
(백곡리 산 113번지) 010-2415-2062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 7:14)

생명나눔으로 부활의 기쁨 온 누리에!

온 올봄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갈5:14)

그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날 때 마땅히 실천해야 할
고귀한 사랑이자 거룩한 의무, 생명나눔.
예수님께서 눈 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장기이중 희망동복을 통해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새 생명을 전해주세요.

지금까지 3천여 한국교회가 생명나눔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주인예배에 설교강사로 초청해 주시면 성도 분들께
생명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전하고,
장기이중 희망동복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생명나눔장기이중동부

생명나눔예배 문의 | 교회팀 02-363-2172

목양신문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역차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 구독문의(의무발송요금) 02)2677-9936
-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 E-mail : mok2677@naver.com / mok2677@kakao.com

SCL헬스케어, 아신대에 기금 전달

교육 · 연구 · 학생 지원 등 학교발전에 사용

아신대학교가 (주)SCL 헬스케어 이경철 회장(재판 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총평의료원장 겸임)으로부터 아신대의 교육, 연구, 학생 지원 등을 위한 발전기금 5천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지난 4월 7일 밝혔다.

SCL 헬스케어는 데이터 기반의 의료로, 개인 맞춤형 형질발달연구를 위한 바이오마커 개발을 통해 진단 및 연구 개발분야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제적 수준의 신약개발임상시험 중앙검정실인 센트럴랩 및 바이오물류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다.

건립한 협력체제를 맺고 있는 SCL 서울과학기술대 연구소는 체계적인 정도관리 시스템과 지속적인 연구 기술력 향상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검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는 등 글로벌 연구 · 의료기관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아신대 정경열 총장은 "SCL 헬스케어 이경철 회장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금으로 삼겨 주신 후원

을 통해 아신대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망을 역할을 다하는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아신대는 신학부, 국제개발협력학부, 교육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상담복지학부의 학부제 20과 6개 대학원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있다.

아신대는 19개년 설립과 함께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학원 과정을 만들고 외국인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며 교육에 오고 있다.

한재도 아신대 국제교육원(AGS)장은 20개국 8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아신대를 졸업한 외국인 학생들은 해당 국가의 기독교 지도자로 세워져 선교 사역과 함께 우리나라의 민간 외교사절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들 통해 최근에는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 25기 인증대학 유지 및 2021년 최고 등급인 '우선인증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산불피해지역 지원 위한 성금1억 기부

대형교회 모임 '사림과 섬김' 월드비전에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영환)이 사림과 섬김(공동대표 이규현 · 주승중 · 유기성)으로부터 강원 · 경북 산불피해 후원금 1억원을 전달받았다.

후원금은 월드비전의 강원 · 경북 지역본부들 통해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 가정과 아동을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모란 팔수기전, 가루 등 생필품을 지원하는 긴급 지원과 주거 재건 지원 및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정서지원 등이 사용된다.

지난 4월 7일 월드비전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한 사림과 섬김은 15개 한국 대형교회 목회자 모임이다. 후원에 참여한 총 15개의 교회에서는 산불피해 아동 및 이재민을 위해 자원적으로 모금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활동으로 모인 성금 중 1억원을 월드비전에 기부했다.



후원에 참여한 주승중 목사는 "최근 수 많은 피해를 가져온 역대급 규모의 대형 산불 소식을 접하며

"한국 교회와 사회를 위해 한걸음 앞을 나가야 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

은 이재민의 아픔을 나누며, 피해지역이 하루빨리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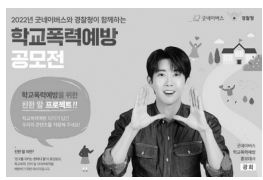
경찰청과 함께 학교폭력예방 공모전

국제네이버스, 언어폭력 ·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 근절 목표

국제네이버스가 4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찰청과 함께 '제1회 국제네이버스 학교폭력예방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네이버스 학교폭력예방 공모전'은 청소년의 긍정적 언어 사용을 독려하고, 언어폭력 ·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초·중·고등학교와 사립·전국 청소년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위로도 응모할 수 있으며, 수상자는 7월 중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발표된다.

국제네이버스 학교폭력예방 홍보대사인 방송인 공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을 물리칠 수 있는 상처를 남기는 행위임을 깨닫고 친구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국제네이버스 학교폭력예방 홍보대사로써 적극적인 활동을 아나나고 싶고 고 전했다.

코로나 역경 속에서도 연탄 2백4십만 장 나누다

바람공동체 · 연탄은행, 총 15,249가구에 전달

취약계층에 연탄 등을 제공하고 있는 바람공동체와 연탄은행이 지난해 에너지복지 15,249가구에 총 2415,333장의 연탄 나눔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어 제1회 연탄 나눔 수혜자 2,821명도 있었다.

바람공동체 대표 박기복은 "2021년은 2020년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확산 등 악재가 겹치면서, 연탄·난방 비용 및 신정 후 추위가 겹쳐있던 때"며 "이러한 지원봉사자 급감 현상은 곧바로 연탄

후원 감소로 이어져 코로나 이후 매년 연탄보급고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토론했다.

이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에너지 빈곤층 이분들에게 있어 연탄은, 추운 날씨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안 생활에서의 유일한 따뜻한 위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또 "절대빈곤층 및 에너지빈곤층을 위해 2022년에도 사랑의 연탄 3,000,000장 나눔과 집수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후원 · 자원봉사자 30명 확보 캠페인을 통해 사랑의 온기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표 박기복은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 후유증, 봉사자들 덕분에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다"며 "2022년에도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워 가지 힘든 시기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어르신들을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오성 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 사랑의집 연혁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09년 시설 공동생활가정
2011. 07. 27 사랑의집 시흥간호 총공
2011. 11. 23 사랑의집 (5호) 시설 인가
2014. 02. 10 시설을 살려내는 이웃 (문서단체 설립)
2019. 09. 23 사랑의집 (2호) 시설 인가
2020. 05. 11 사랑의집 (2호) 시설 인가

■ 사랑의집 시설장

(박흥열 목사 수석감독)
2007. 10. 3 이천교회원회 표창
2014. 12. 13 이천시정 표창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2020. 12. 18 이천시정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읍면 읍면로 82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가족세션도

박흥열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션도 아카데미 완강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

대다수의 교회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지키고 있을 줄 안다.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신 주님을 같이 묵상하면서 복음에 열거된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사순절이 있다.

화가 렘브란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그 십자가 주위에 서 있는 군중들 속에 전체 고통과는 어울리지 않는 웃음을 한 아는 남자를 그려 넣었다. 이에 대해 세인들은 그 남자가 화가인 렘브란트 자신일 거라고 추측했다. 왜 렘브란트는 시종일관 초월하여 자신의 주님의 십자가 옆에 있기를 원했을까? 그것은 고난을 하신 주님을 통하여 자신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도 고난 주님을 보내면서 렘브란트처럼 주님께서 고난하신 그 장소에 함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동시에 고난의 의의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전에는 성경책의 가장자리가 붉은 색이었다. 그것은 바로 순교의 붉은 피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을 펴고 전리의 말씀을 읽는 순간마다 자신에게까지 도달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순교자들의 피를 뿌리는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전해지게 되고 있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려고 한 것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

피 땀은 복음을 가슴에 품고 불꽃같은 구원의 열정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상기하자!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 나날이 나날이 나날이 있는 관계이다. 그들은 한걸음이 모두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 삼은 수많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온 세상을 등지고 별명의 길로 가고 있는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다! 다시 십자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목매어진 사람들이었다.

2022년 사순절에는 특히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고 생각된다. 차가운 눈리로서가 아니라 피 땀은 복음에 사로잡힌다는 것이다.

"요즘시대에 복음을 위하여 전도에 매진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의 '마스크 가족세션도' 원로가 기억되고"

바른교회 총동공 목사
Ph.D.조성환(종교학)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션도 대표총재
문화대학교(원주) 박흥열 목사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692-1691, 0108730-2573



